희망세상 (2005년 9월호 / 36호)

· 발행인 : 함세웅
· 발행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발행일 : 2005년 9월 1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대중매체에비판의띠를두르는
<매비우스>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탄다. 엘리베이터안벽면에붙은다양한광고를무심히지나치며버스를타고다시지하철을탄다. 전철에서일터까지는10분이걸린다. 건물외벽에붙은광고를보고한창 인기 있는 연예인의 얼굴을 차지하고 있는 옥외광고를 올려본다. 사무실에들어와 신문을읽고인터넷으로 뉴스를 본다. 자주 사용하는 몇 개의 이메일을 열면 지난 밤사이에도착한스팸메일을지우는일로하루를시작한다.

일하는 중에도 핸드폰에는 광고 문구가 찍히고 보험가입을권유하는광고전화가수시로걸려온다. 퇴근하고집으로돌아오는길에현란한쇼윈도를곁눈질하고 밤이 되면 더 빛나는 건물 외벽에 붙은 광고판을 훑어본다. 이렇듯아침부터밤늦은시간까지우리는수많은매체에일방적으로강요당하고있는것은아닐까?

“ TV방송, 인터넷, 영상물, PDA(휴대용 컴퓨터), 영화, 광고, 신문등다양한매체들이주변에있지만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인식하는지 잘 모릅니다. 실제로 한 광고전문가의연구결과에의하면보통직장인이하루에 약 1,500개이상의광고매체를접한다고합니다. 전철을타면벽면에붙은조각조각의광고판과영상광고물, 버스좌석뒷자리에붙은광고, 사람의시선이닿을 수있는곳이라면어디든매체가있습니다.

TV나 신문, 인터넷 등에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쪽으로만 매몰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이 붙는다는 말이 있죠. 결국 아무 비판 없이 일방적으로수용하게되는것이가장큰문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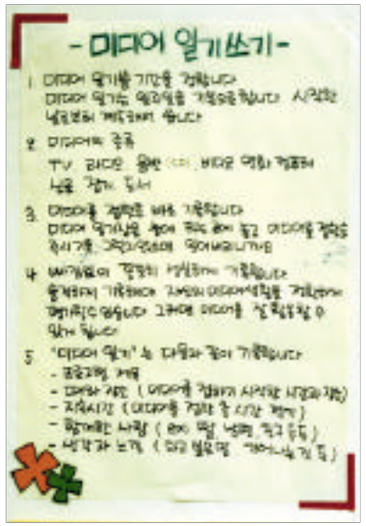
특히나 광고는 경제적으로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받아들이면 판단이 흐려지고 무조건적으로 순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매체비평 우리 스스로>(매비우스)의 노영란 사무국장은 일방적으로 무차별하게 주입되는 매체에대해조심스럽게문제를제기한다.

천리안, 하이텔에서 공유

<매비우스>는 지난 95년, 현재의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이전의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등이 있던 시기에 같은 생각을 나누고자 했던 젊은이들이 온라인 상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지금처럼 정보매체가 많지는 않았지만매체비평을위한목소리를담아내기시작한것이다.

이후 갑자기 늘어나는 매체들을 보며 온라인 활동에 한계를 느끼던 중 뜻이 통하던 이들은 <매비우스>라는 단체를 만들게 되었다. 서울지역의 대학신문사에서 활동하던 이들로 구성된 매비우스는 서로가 느끼는 문제의식을 언론에만 한정짓지 말고 보다 다양해지는 정보화시대를어떻게바라보아야할지로관심의범위를넓혔다고한다.

현재 <매비우스>에서 상근을 하며 활동하는 노영란 사무국장과 강에스더 교육부장은 <매비우스> 창립 당시의 멤버다. 결혼을하고 나이를 먹어도한 가지 일을 꾸준히한다는것이남자나여자나우리사회에서는쉬운일이아니란점을생각하면이들은타고난일꾼들이 아닌가 싶다. 아마도마음이 잘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말을 건넸더니 오영란 사무국장과 강에스더 교육부장이눈웃음을주고받는다.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 미디어 일기 쓰기 ’는 아이들에게 분별력을 길러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

교육을 담당하는 강에스더 교육부장은“ 사실 처음에는 사무실을 차려 놓고도 3년을 못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정보기술이발달할수록저희들이할일이더많아지더라구요. ”라며 오히려 매비우스가 끊임없이 해야 할일이생겨서지금까지활동하고있는것이아니냐는답을한다.

가정 · 사회 · 교육현장의 일원화

<매비우스>는 큰 단체에서 하지 못하는 틈새의 일들을 자신들의 일로 끄집어냄으로써 매체비평에 새로운 문화를만들어가고있다.

대표적인예로그들이하고 있는미디어교육 관련프로그램들은현재다른단체에서도빌어서할정도로널리 알려져 있다고 한다. 가족이 함께 참여해서 캠코더를사용하여영상을만들기도하고가족사이에일어난일들을 신문으로 만들어 보기도 한다. 이‘ 가족영상캠프 ’는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에서 느끼는 정보를 서로솔직하게표현하고소통을공유하는프로그램이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을 함으로써 매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길러주는일또한이들의주요활동중하나이다.

“ 학교에서 미디어교육 강의를 하다 보면, 하나의 것을 보면서도 너무다른 시각을 가졌다는걸 느껴요. 인터넷을어떻게보느냐고질문을하면현장교사들은인터넷 정보와 학습을 위한 매체라 하고, 학생들은 게임이라는 단어만 떠올립니다. 인터넷이라는 하나의 매체를 보면서 가장 비슷한 시각으로 봐야 하는 학생과 교사들의 시각도 이렇게 다르다는 거지요. 저희는 이런 점에서 미디어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강에스더 교육부장은 이렇게 말하면서 미디어교육은 영어나 수학처럼정답이있는교육이아니라고덧붙인다.

매체란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외적인 양태의 것으로나타나기때문에양질의문제와는상관없이개인이스스로판단할수있고찾을수있도록도와주는것이 미디어 교육의 의도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스스로 걸러내야 할 것과 수용해야 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준다는 것이다. 이들은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학교가 하나의 라인을 갖고 각각의 실정에 맞게 매체교육에중심을두어야한다고강조한다.

청소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교육 현장

미디어교육은 선택이 아닌 의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이들도 <매비우스>의 이런 문제 제기에 공감을 하면서도 ‘ 미디어교육 ’이란 새로운 교육을 공공의 교육으로 실행에 옮기는 일에는 좀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 이들은 현재 언론 관련 단체들과의 꾸준한 연대를 통해 ‘ 미디어교육 ’의 교과과정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예정이다.

어찌됐건 <매비우스>의 끊임없는 문제 제기를 교육인적자원부가 공유한 것

보라매 공원에서 ‘ 미디어 내가 주인입니다 ’라는 주제로 미디어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자체만으로도 나름대로의 성과라고 보고 있으니, 아직 이들의 역할이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것일수도있다.

이들은‘ 미디어교육 ’을 강조하면서다른 한편으로는 방송관련 법안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놓치지 않는다. “ 모든 미디어, 이제는 위성 DMB(이동방송 서비스)까지나온다고하는데향후새로나오는미디어는산업자본이 낳은, 어떻게든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는 기업의 자본 논리의 수확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되면 제도적으로 거를 수있는시스템은적어지고개개인에게노출되는건너무많아지니까문제가되는겁니다.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 기술력이 있는데 활용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마이너스다. ’라고 하지만 사업주가 수용자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이익에만 몰두한다면 그야말로 매체의 난개발이 되어버리게 되죠. 그건 고스란히 우리 몫으로 다가올 겁니다. ”라며 “ 쌍방향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일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 ”라고 오영란 사무국장은말한다.

수용자를 배려하는 매체가 필요

수용자를 배려하지 않는 매체를 만들어내는 기업도 정책을 만드는 정책입안자들도 모두가 사회에 대한 도덕적의무를저버리게되는과오를범할것이분명하기 때문에 작은 힘이지만 자신들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다지넓지 않은 그들만의 공간한쪽에는빼곡히쌓인 비디오 테이프와 최고급의 기종은 아니지만 인터넷을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은 PC 2대가 놓여 있다. 하루가다르게튀어나오는매체들을상대할준비가되어 있는그들은진지한모습이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 운전을 할 때 일방통행 길을 가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속도가붙는 것을 느낀다. 저 앞에서 이쪽을 향해 오는 차가 없다고 생각하니 더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 매체도 마찬가지란 생각이 든다. 일방통행이아닌양방향통행으로정보가오갈때제대로된세련된매체의기능이나타나는것은아닐까?

<황석선>